

포교 '전문가' 시대 왔다

조계종 포교원 '전문포교사 선발...' 입법예고... 금년내 실시
 계층·분야별 포교 활성화 기대... 교육·관리 등 과제

조계종 포교사 활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1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포교사 선발 및 관리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포교사'란 특정 포교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포교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포교사가 육성돼 포교전문화가 가능해진다.
 전문포교사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 포교사들에 대한 포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포교대상에 따른 '맞춤포교'가 가능해져 보다 깊이 있고 자연스러운 포교방법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령'은 포교법 제37조 '포교사는 일반포교사와 전문포교사로 구분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포교원은 사문화돼왔던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수행 등 각 분야의 전문 자질을 갖춘 포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포교사단(단장 양상홍)은 '환영' 분위기다. 포교활성화를 위해 전문포교사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포교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시대에 맞는 포교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명회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은 "전문포교사 제도가 실시되면 4500여 포교사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2000여명의 포교사들에게는 자기진작의 계기가, 그렇지 않은 포교사들에게는 분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포교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해당 분야와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갖춰지도록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종단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제도적인 뒷

받침도 뒤따라야 한다. 즉 종단 내에서 일반 문화유산해설사나 사회복지사보다 문화나 복지 전문포교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포교원은 2월말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한 뒤 의견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중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내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포교사 선발은 서류전형을 기본으로 하며 자격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포교원장은 10인 이내 전문포교사 선정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전문포교사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선정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교위원회에서 정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전문포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일반포교사 활동 경력사항 및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전문포교사 지원 분야에 관한 활동 계획서 △포교사단(단장, 지역단장) 추천서 △교구포교국장 의견서를 첨부해 포교원에 제출해야 한다. 포교사단 중앙단장도 응시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포교사로서 1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일반포교사로서 팀장 경력자 그리고 일반포교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 졸업 △포교원 △전역 군승(제가자), 교법사 △종단으로부터 자격(국제포교사, 어민이지도사)을 부여받고 5년 이상 포교활동중인 자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사찰문화재 관람료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70% 본지 교계 여론 주도층 67명 긴급설문

문화재관람료 받아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최근 정부와 조계종 간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의가 오가면서 합동 조사인 문화재관람료 조폐 문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출가자 25명, 재가자 27명 등 불교계 여론주도층 52명과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폐지여부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폐지 찬성(29명)보다는 반대(38명)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29명 가운데는 재가자가 25명이나 됐고, 반대한다는 38명 가운데에는 출가자가 33명이었다.
 종단이나 사찰 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출가자들의 반대가 높고, 상대적으로 재가자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폐지에 반대하는 38명 가운데에서도 절반가량이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 특히 직접 이해 당사자인 관람료를 받는 사찰 관계자 15명 가운데 12명이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10명 중 7명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보인 셈이다.
 폐지 견해를 보인 사람들은 관람료 폐지가 불교 이미지 제고, 사찰 재정 투명화, 포교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사찰 경제 효율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기사 4면 노병철·유철주 기자

동대 일산병원 불자회 '연우회' 창립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불자모임 연우회(회장 이석현)가 1월 25일 창립회를 봉행했다.
 병원직원 354명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연우회 창립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현태, 포교원장 도영,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우회는 정기법회와 각종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회에서 현태 스님은 "연우회가 창립함으로써 병원불자들이 수행으로 환자를 치유하겠다는 열의를 이어가게 됐다"고 격려했다.
 김강진 기자 kangj@buddhan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단청장 만봉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두루미 박사' 진익태씨

천태·진각종 신년계획 8면 인생을 경영하라 10면



대중공공기던 날 9면 목조선의 모든 것 18면



만해마을 집필실 탐방 23면 '티 소름리에'의 세계 26면

3귀의계→5계→보살계

조계종 포교원 신도수계원칙 정착키로

조계종 포교원 신도 5계 수계를 3귀의계 수지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도관리와 수계체계 확립에 적극 나선다.
 포교원은 1월 24일 열린 제30차 계단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신도의 5계 수계는 3귀의계 수지 후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찰마다 보살계와 5계, 3귀의계를 아무런 원칙 없이 수지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정도로 정해진 기간동안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불자들에게만 계를 주는 것이 맞다"며 신도위계 및 수계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계사 영산율원주 철우 스님은 "신도는 3귀의계를 수해야만 5

계를 받을 수 있는 '계체(戒體)'가 주어지고, 5계 수지 후 3-5년 동안 신도의 위계를 체득하면 보살계를 수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은 방침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포교원은 사찰마다 수계체계가 명확치 않아 체계적인 신도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불자(불은 의미의 불교인)'와 '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3귀의계-5계-보살계 수지의 원칙을 종단차원에서 정착 시키 나갈 방침이다.
 한편, 포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포교연구실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로 조계종 신도의 정체성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신도법 관련법 개정 등 제도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1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연석회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불교 대표) 외에도 정재계, 사회각계의 대표 33인으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으로 지속성장을”

종교·사회 대표들 연석회의 구성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교·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1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사회적 과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한 지 100여 일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nia.com

설 연휴관계로 지역에 따라 신문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해외통신원 모집

현대불교가 2006년 지면개편에 따라 국제면을 신설하고 세계 곳곳의 불교소식을 전할 해외통신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통신원은 생업이나 학업이 종사하면서 거주 국가의 불교 소식을 전하게 되며, 기획 취재 시 원고료 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게 대한 추천도 좋습니다. 특히 불교국가에서 학업 중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격 : 불교신도라면 누구나 가능(출가자 포함)
 ◇지 역 :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
 ◇연락처 : 전화(82-2-2004-8240)
 팩스(82-2-737-0698)
 ◇이메일 : mwhan22@hanmail.net
 ivanovich29@hanmail.net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들 성심껏 키워주시는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송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점등

공단등

팔각조립등(반야심경)

주름등(만월봉축등)

공단황금등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경기도 아남시 춘곡동 180-1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타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평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